

# 백문이 불여일感, 어둠속의 대화

김민지 재야 예술애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시가 있다면 가볼 의향이 있는지? 지난 7월에 시작하여 올 12월 30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어둠속의 대화>(Dialogue in The Dark)전은 보통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을 뒤집어놓는다. 관람객은 시각이 차단된 채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일상을 '감상'한다. 광고나 홍보 없이 입소문만으로 세계 130여개의 전시장에서 연간 450,000명의 관람객을 모았다는 이 전시는 우리에게 '암흑의 세계'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을까?



“시력을 잃는다는 거 상상하기도 싫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난 살 수 없을 거 같아.”

언젠가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다. 카를로스 사우라의 <탱고>를 본 다음이었다. 색색가지 각테일 빛 조명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용수들의 관능적인 움직임. 그때 우린 영화가 주는 시각적 쾌감에 빠져 꽤 진지하게 ‘본다는 것’에 대해 토론했다. 어둠. 불편함은 둘째 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 해질녘 노을로 물든 하늘, 모네가 <해돋이>를 그릴 때 쓴 청록색, 왕가위 영화의 이미지와 색감도 느끼지 못한다. 생각만 해도 두려웠다.

어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아마 두려움일 것이다. 절망일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을 떠올리고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리라. 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다. 어둠과 절망을 연관짓곤 하던 내가 한 시간 동안 완벽한 암흑을 체험해보고 온 것이다. 온통 이미지 천지인 이 세상에서.

<어둠속의 대화>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시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그래서 처음엔 호기심부터 들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특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꼭 정해진 시간에 다른 관람객들과 함께

입장해야 하고, 관람 전에 오리엔테이션도 받아야 한다. 여성 관람객은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오라는 말까지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다. 전시실은 디자인미술관 2층이었다. 5시 15분 예약을 확인하고 앉아 있으니 잠시 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5시 15분 관람객들을 모았다. 나까지 여덟 명이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건가?

그 여자분이 말했다. 휴대폰이나 야광 손목시계처럼 빛이 새어나올 수 있는 물건과 가방 등의 소지품은 들고 들어갈 수 없다고. 안전상 안경이나 채이 뾰족한 모자도 벗으라고 한다. 우리가 소지품을 보관함에 넣고 다시 모이자 이번엔 하얀 지팡이를 하나씩 나눠준다.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그 지팡이. 그걸 받으니 그전까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긴장이 됐다.

지팡이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손가락에 끼우는 법을 배웠다. 지팡이 끝에 달린 고리에 오른손을 넣고, 매듭이 지어진 끝부분은 엄지손가락에 끼운다. 정말 단순한 일인데 모두들 제대로 하지 못해 그 여자분 손만 쳐다본다. 다들 나처럼 긴장했나보다.

간단한 설명을 듣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갔다. 두꺼운 문 뒤로 펼쳐진 시커먼 공간. 넓은지 좁은지도 분간이 안 된다. 어둠이 한 명씩 차례대로 우리를 삼키는데 갑자기 여자 하나가 무섭다고 소리를 지른다. 들어갈지 말지 망설이는 여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인다. 아직 문을 닫지 않아서 빛이 새어 들었다. 여자의 남자친구와 아까 그 여자분이 괜찮다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고 여자를 달랜다. 이

런 데인 줄 모르고 온 건가? 여기를 뭐 데이트 코스나 귀신의 집쯤으로 알고 온 건가?

여자가 마음을 정하고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문이 닫혔다. 농밀한 어둠.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두 다리와 지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두려웠다. 아까 그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명량한 목소리가 울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솔할 관람 도우미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옛된 목소리가 여고생 같다. 도우미는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팀 이름을 정하자고 말했다. 커플 세 팀은 진주, 사파이어, 옥, 그리고 혼자 온 나와 다른 여자 한 분이 루비 팀이 됐다. 살짝 아쉬웠다. 하지만 이런 데 혼자 오는 멋진 남자는 없다. 절대로.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다. 여기저기서 탁탁거리는 지팡이 소리가 났다. 다들 나처럼 우왕좌왕하고 있는 듯했다. 아름 씨는 계속 박수를 친다. “루비 팀 여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왼쪽 벽을 따라 오세요. 진주 팀…” 벽을 따라 천천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발을 헛디딜까 걱정됐다.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손이 나타나 방향하는 나를 잡아주었다. 마음이 놓였다. 어릴 때 넘어져 막 울다가 엄마 손을 잡은 기분이었다.

우리가 처음 간 곳은 공원이나 숲 속 같았다. 왼쪽에 잎사귀들이 만져지고 새소리도 났다. 이따금 머리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했다. 여기가 어디 같냐고 아름 씨가 묻는다. 다들 신이 나서 대

답한다.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다니 놀랍다. 그곳은 공원이었다. 작은 다리도 있었고, 자갈길도 있었다. 물이 흐르는 곳도 있어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다. 누군가가 “이거 진짜 물이에요?” 하고 묻는다. “마셔 봐요!”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온다.

아름 씨가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어 가자고 했다. 다들 앉았다. 그러자 아름 씨가 사진을 찍겠다고 한다. “여기를 보세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였다. 정말 사진이 나올까? 아름 씨가 정말 멋진 사진을 찍었다고, 틀림없이 잘 나올 거라고 했다. 새카맣게. 다들 속았다. 또 한 번 웃음이 터져나온다.



그 다음 장소는 무척 시끄럽다. ‘골라, 골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 시장이구나. 왼쪽에 있는 물건들을 더듬더듬 만져봤다. 쌀도 있고 사과, 배, 마늘, 양파도 있다. 만지기만 해서 뭐지 잘 모른다. 냄새를 맡아봐야 한다. 하나씩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볼 때마다 기분이 묘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과일, 야채, 공산품들이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다니. 모든 것이 다 냄새도 다르고 촉감도 다르다.

시장 체험을 마치고 팀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했다. 서로 손을 맞잡으면 어둠 속에서도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다. 내가 두 번 연속 이겼다. 진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시장에서 만져본 물건들 중에서 말해야 했다. 내 파트너는 윈두라고 대답했다. 내게서 좋은 냄새가 나고 손을 잡았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다. 기분이 좋았다. 나도 파트너의 느낌을 생각해봤다. 보드랍고 작은 손. 셋노란 병아리다. 신기했다. 어둠 속에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 우리가 밖에서 서로를 봤다면 어땠을까? 키 작은 여자, 비쩍 마른 여자, 예쁜 여자, 비싼 핸드백을 든 여자… 이렇게 서로를 봤겠지.

장소를 옮겼다. 어색하던 지팡이도 이제 자연스럽게, 걸음도 제법 잘 걸을 수 있다. 아까 무섭다고 소리치던 여자도 즐거운 목소리다. 이번엔 도로변인 것 같았다. 차 소음이 들리고 매연 냄새도 났다. 횡단보도를 건넜다. 여긴 차 소리만 날 뿐이지만, 실제 세상 밖은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시각장애인들이 걱정됐다. 우리 동네 신호등에도 음향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던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름 씨가 바닥에 뭔가가 느껴지냐고 물었다. 편평한 바닥이 아닌 울퉁불퉁한 느낌. 보행 유도 블록이라고 했다. 길쭉한 모양은 계속 가도 좋다는 뜻, 동글동글한 모양은 멈추거나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계단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에, 또 지하철 승강장의 노란색 안전선에 그 블록이 깔려 있는 게 생각났다.

셔터가 내려져 있는 상점가를 지나 어느 곳으로 들어갔다. 음악이 들린다. 카페인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은 미각 체험을 하는 것 같았다. 저쪽

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는 여자들 소리가 크게 울린다. 자신들을 바텐더라고 소개하는 목소리에서 환한 미소가 느껴진다. 이런 거구나. 보이지 않아도 상상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벤치, 오토바이, 자전거... 아까부터 아름 씨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과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 “이게 뭘까요? 무슨 색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물건의 모양이나 색깔을 상상한다는 게 영 어색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마음속에 그려보게 된다.

바텐더가 메뉴를 말해줬다. 스내플을 달라고 했다.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뭘 줘을까?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셔봤다. 입 안 가득 퍼지는 사과 향. 평소보다 맛과 향이 훨씬 진하다. 100% 생과일주스도 아닌, 설탕과 향료를 넣은 음료수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 수많은 맛이 느껴진다. 영화 <라따뚜이>의 주인공 레미가 된 느낌이다. 예전에 TV에서 유럽에 있는 어둠 속의 레스토랑을 본 기억이 났다. 깜깜한 곳에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미세한 맛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음료를 마시며 바텐더와 얘기를 나눴다. 바텐더는 오늘 아침 10시부터 계속 손님들을 맞았다고 했다. 어쩐지 목소리가 좀 신 것 같다. 힘들지 않느냐고 했더니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재미있단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나중에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돕는 임상심리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그녀. 아, 그랬다. 거기 있는 도우미들은 모두 시각 장애인이었다. 처음 어둠 속에 들어와 아름 씨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안내에, 도우미들의



밝은 웃음과 다정한 손길에, 어느새 잊고 있었다. 아니, 그 안에서는 그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했다.

바텐더가 자기 눈을 만져보라고 한다. 손끝으로 감은 눈이 만져졌다. “적외선 안경 같은 거 없죠? 하하하.” 다들 신기해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도우미들도 처음 가는 길은 우리와 똑같다고 한다. 지금 이 안은 익숙해져서 잘 다니는 것이다. “지하철 계단에서 구른 적도 많아요. 하하하하.”

아름 씨가 우리를 부른다. 이번엔 또 어디일까? 자리를 옮겨 어느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 단번에 좁은 곳인 걸 알 수 있다. 이제 투어가 다 끝났다고 했다. ‘벌써?’ 시간을 말해주는 시계 소리가 들렸다. “6시 27분.” 정해진 한 시간은 이미 지난 지

오래다. 이 시계 소리를 밖에서 들려주면 몇 번을 반복해도 못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우린 한 번에 들었으니 분명 청각이 되살아난 것이리라.

마지막으로 아름 씨가 웃음기 가득 머금은 특유의 명랑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손 많이 잡아드렸잖아요. 밖에 나가면 저희도 똑같거든요. 그럴 때 저희 손 많이 잡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천천히 퍼진다. 그 말이 계속 울린다. 기분이 이상하다.

밖으로 나왔다. 환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보이고 푸른빛이 도는 벽이, 빨간색 의자가 보인다. 하지만 내가 처음 여기 와서 본 것과는 달랐다.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참 귀중한 시간이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을 온몸으로 느낀 기분이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 전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온통 ‘감동, 감동!’ 감동의 물결.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나도 전시를 다녀온 후엔 시각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더 도와줘야 한다는 건가? 난 그저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을 체험하고 싶을 뿐인데. 그랬다. 그런데 이렇게 냉소적이었던 나도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어둠속의 대화>는 시각장애인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느껴보는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아니라 아홉 명의 웃음 많은 젊은이들이었다. 내게 도우미

들은 해질녘 노을로 물든 하늘, 모네가 <해돋이>를 그릴 때 쓴 청록색, 왕가위 영화의 이미지와 색감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장애인들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단지 눈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집으로 가는 길. 인도에 깔려 있는 보행 유도블록을 밟으며 걸어봤다. 주변을 쳐다본다. 우중충한 하늘 아래 건물이, 간판이, 지나가는 차들이 보인다. 지름길로 가려고 대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주말이라 학생들이 별로 없다. 길가에 잘 정돈된 정원이 보인다. 눈을 감고 왼손으론 장우산을 지팡이처럼 잡고, 오른손으론 관목 이파리들을 만지며 걸었다. 빗물을 머금은 이파리가 느껴졌다. 손끝에 초록색 물이 드는 것 같았다.

언제나처럼 난 원고를 보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세상 풍경을 볼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책도, 영화도, 그림도, 공연도. 때론 쌍무지개를 보고 신기해하거나, 센 강변에서 에펠탑을 보고 낭만에 젖기도 하겠지. 하지만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따금씩 눈 감고 8월의 포도 향기를 맡아보고, 바람의 노래를 들어보고, 공원을 거닐어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만져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가끔 흰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께 길 안내를 해드리며 행복해하겠지.

내 안에 또 다른 눈이 생겼다.

글쓴이 김민지 차청 문화적향량 지향 무명 재야 예술애호가다.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예민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는 않았다.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였으나, 도서관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결국은 현재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